

보도 일시	2023. 2. 27.(월) 09:00	배포 일시	2023. 2. 27.(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	책임자	과장 박현성 (044-203-2761)
		담당자	사무관 이나은 (044-203-2766)

## 꿈의 오케스트라·댄스팀 늘리고 늘봄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돌봄 확대

-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발표, 수혜자 선택 늘리고 약자에 더 가까운 지원체계 확립
- 2. 27.~28.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개최, 디지털 전환기 교육패러다임 변화 논의

- 누구나: 일상에서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댄스팀 거점 확대, ▲ 수혜자 선택형 지원구조 개편
- 더 가까이: 지역에서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30개소 조성
- 더 깊게: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 ‘미래사회 대응’ 디지털 문화 예술교육 환경 조성, ▲ 우수한 K-문화예술교육 모델 수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2월 27일(월) ‘미래 문화예술 교육포럼’에서 발표한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및 국정과제에 근거해, 향후 5년간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3개 추진전략, 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박보균 장관은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예술치유와 같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윤석열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대표 주자이다.”라며,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국내 현장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K-문화예술교육 정책 모델을 수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교육 확대,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확립

먼저,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약자의 문화예술 수요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한다.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댄스팀 거점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다각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민 우울감 심화에 대응해 대상 특화 예술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후원을 공세적으로 유치해 국고지원 이후 수혜시설의 자립을 지원한다.

수혜자가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수혜시설이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강사·단체) 정보를 찾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을 신규 구축해 '24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해 문화기반시설·비문화시설 등이 원하는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우리 동네 학교와 지역에서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에듀케어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과 연계해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디지털아트·뮤지컬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방과 후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한다. 초등학교나 문화기반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동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예술 격차를 극복하고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정(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2027년까지 거점 30개소를 조성한다.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 인력, 공간 등을 보유한 주체를 지정하고, 이 주체에 직·간접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공정하게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취약지역에 신규 거점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K-문화예술교육 글로벌 확산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특화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체험형 연수 과정을 새로 개발하고, 예술·기술 융복합 문화예술교육도 신규 개발·확대할 예정이다.

우수한 K-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세계로 수출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예술꽃씨앗학교’, ‘꿈의 댄스팀’ 등 한국의 우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적용해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세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어젠다’ 발표 이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높아진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 유네스코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형 정책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추후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대국민 설문조사·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수혜자와 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종합계획안을 도출했다.

## ■ ‘미래 문화예술 교육 포럼’ 개최, AI·크리에이터 경제 등 미래 문화예술 교육 정책환경 진단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박은실 이하 교육 진흥원)과 함께

2월 27일(월)과 28일(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 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미래 문화 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한다.

첫째 날인 27일(월)에는 전반적인 미래 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윤석열 정부 정책 거버넌스 변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사회 전망(장덕진 교수), ▲ AI와 챗GPT 등 다가온 미래의 우리 삶과 문화의 변화(서민준 교수), ▲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변화(모종린 교수)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이후 '꿈의 댄스팀'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달라진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토론할 예정이다.

### ‘지역’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예술교육 논의 이어져

둘째 날인 28일(화)에는 세부적으로 ‘지역’과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방향을 다룬다. 먼저 ‘지역 문화시대를 여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로컬의 힘, 문화예술과 지역활력’ 발표에 이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희대 김상균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기의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후 디지털 사회변화를 맞이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붙임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행사개요

따로 붙임 1.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7) 전문

2. 그림으로 보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7)



□ **행사개요**

- (포럼주제)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 (일시/장소) ‘23. 2. 27.(월)~2. 28.(화) 14:00~17:00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참석대상)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 및 관계자 약 300명
- (주요내용) 주제별 발제 및 종합 토론,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발표 등

□ **2월 27일(월)**

시간	내용	참석
14:00~14:03	3'	홍보 영상 상영
14:03~14:05	2'	개회사 <b>박은실</b> 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4:05~14:08	3'	환영사 <b>박보균</b>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14:08~14:12	4'	영상 축사 <b>반기문</b> 이사장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14:12~14:17	5'	영상 축사 <b>김승수</b> 의원, <b>황보승희</b>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17~14:20	3'	기념 촬영 등
14:17~14:23	5'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발표 <b>박현성</b>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14:23~14:25	2'	장내 정리
14:25~14:50	25'	[발제1] 거시적 관점의 미래사회 전망 윤석열 정부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b>장덕진</b>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중앙도서관장)
14:50~15:10	20'	[발제2] AI와 챗GPT 다가온 미래의 우리 삶과 문화의 변화 <b>서민준</b> 교수 (KAIST AI대학원)
15:10~15:30	20'	[발제3] 크리에이터 경제,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변화 <b>모종린</b>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15:30~15:40	10'	휴식
15:40~16:40	60'	[종합토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미래 사회 변화,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 *좌장: <b>김석호</b> 교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토론: - <b>모종린</b> 교수 (연세대 국제대학원) - <b>장덕진</b> 교수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 <b>서민준</b> 교수 (KAIST AI대학원) - <b>정갑영</b> 예술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b>김주원</b> 발레리나(꿈의댄스팀 홍보대사) - <b>정태용</b> 위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 2월 28일(화)

시간		내용		참석
14:00~14:05	5'	축사		<b>황순우 이사장</b>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4:05~14:15	10'	문화예술교육 미래전략 소개		<b>박은실 원장</b>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부) 지역 문화시대를 여는 문화예술교육,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그린다				
14:15~14:35	20'		[발제1] 로컬의 힘, 문화예술과 지역활력	<b>이영범 원장</b> (건축공간연구원)
14:35~15:30	55'	[1부]	[종합토론(안)] 국민의 삶 속으로 촘촘히,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좌장: <b>김세훈 교수</b>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영화학과)  *토론: - <b>김규원 선임연구위원</b> (문화관광연구원) - <b>강승진 실장</b> (춘천문화재단) - <b>박순태 본부장</b>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b>박성훈 실장</b> (SK사회적가치연구원) - <b>이영범 원장</b> (건축공간연구원) - <b>김자현 본부장</b> (문화예술교육진흥원)
15:30~15:40	10'	휴 식		
(2부)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예술 경험 방법을 탐색하다				
15:40~16:00	20'		[발제2] 디지털 대전환기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b>김상균 교수</b> (경희대 경영대학원)
16:15~16:55	40'	[2부]	[종합토론(안)] 디지털 사회 변화와 함께 등장한 문화예술교육 이슈, 현장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좌장: <b>조은아 교수</b> (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학과)  *토론: - <b>김상균 교수</b> (경희대 경영대학원) - <b>김혜인 실장</b> (문화관광연구원) - <b>박지택 팀장</b> (한화시스템) - <b>신보슬 책임큐레이터</b> (토탈미술관) - <b>박유신 교사</b> (석관초,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사 협회장)